

기술분석보고서 출판·매체복제

라온시큐어(042510)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전영진 연구원

[▶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IRTV)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온시큐어(042510)

IT 보안/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

기업정보(2024.08.06. 기준)

| | |
|------|----------------|
| 대표자 | 이순형, 이정아 |
| 설립일자 | 1998년 04월 16일 |
| 상장일자 | 2000년 12월 29일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업종분류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주요제품 | IT 보안/인증 플랫폼 등 |

시세정보(2024.08.06. 기준)

| | |
|------------|-------------|
| 현재가(원) | 1,858원 |
| 액면가(원) | 500원 |
| 시가총액(억 원) | 1,041억 원 |
| 발행주식수 | 56,025,871주 |
| 52주 최고가(원) | 3,065원 |
| 52주 최저가(원) | 1,689원 |
| 외국인지분율 | 0.53% |
| 주요주주 | |
| 이순형 외 9인 | 39.61% |

■ 다각화된 IT보안 및 인증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

라온시큐어(이하 동사)는 1998년 4월 설립되어, 200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IT 보안/인증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동사의 사업영역은 크게 '솔루션 사업부문'과 '서비스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루션 사업부문은 통합인증/계정접근관리 플랫폼, 모바일보안, PC보안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부문은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과 인증 서비스, 화이트해커 기반의 화이트햇 서비스, 메타버스 기반의 실습 전문 서비스 '라온 메타데미'와 '카드본인확인 서비스', 개인용 모바일 백신 앱 '라온모바일 시큐리티'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정보보안 시장 성장세 지속에 따른 제품수요 증가

산업의 고도화 속 처리 데이터량 증가에 따라 관련 시스템상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관 보안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요 사업인 정보보안 솔루션/서비스가 속하는 정보보안 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동사의 보안/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최근 3개년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차세대 보안/인증 기술과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매출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술제품 개발/공급 역량 강화 및 신사업 발굴 기반 성장동력 마련

동사는 IT시스템 전반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서비스를 확보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디지털인증, 제로트러스트보안 등을 아우르는 차세대 정보보안 시장에 대응하며,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K] 제로트러스트의 가이드라인1.0 발표 등과 같은 정부 주도 산업육성 기조 하에서 확립 기술체계의 신뢰성 기반 비즈니스 레퍼런스 축적을 통해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 매출액 (억 원) | 증감 (%) | 영업이익 (억 원) | 이익률 (%) | 순이익 (억 원) | 이익률 (%) | ROE (%) | ROA (%) | 부채비율 (%) | EPS (원) | BPS (원) | PER (배) | PBR (배) |
|------|--------------|-----------|---------------|------------|--------------|------------|------------|------------|-------------|------------|------------|------------|------------|
| 2021 | 433.5 | 16.7 | -9.9 | -2.3 | -49.3 | -11.4 | -21.0 | -7.9 | 105.8 | -172 | 805 | - | 5.0 |
| 2022 | 468.2 | 8.0 | 42.9 | 9.2 | 83.1 | 17.7 | 19.3 | 11.0 | 70.5 | 172 | 983 | 12.2 | 2.1 |
| 2023 | 518.4 | 10.7 | -16.5 | -3.2 | 60.5 | 11.7 | 9.9 | 7.9 | 64.7 | 104 | 853 | 23.8 | 2.9 |

기업경쟁력

다각화된 보안/인증 제품의 개발을 위한 고유 기술체계 확립

- IT 보안/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 일상생활/금융/스마트오피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보안/인증 라인업 확보
- 기술경쟁력 기반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비롯 포털, 오픈마켓, 핀테크, 게임, 통신,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1,000여 곳 이상의 기업고객 확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요산업 선도 기관들과 협력 하 실증적 사업체제 구축

- 실제적 연구개발비 투자
 - 선순환적 투자 바탕 확립 보안/인증 기술의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의 개발
- 수요산업 선도기관들(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연구개발 지속 → 신규 기술사업화 체제 실제화

핵심기술 및 적용 제품/서비스

- 자체 솔루션/서비스 설계와 이에 기반한 시스템 운용상 휴리스틱(Heuristics)에 기반하여 폭 넓은 보안/인증 라인업 구성
- 기반 기술체계의 고도화 및 신규 융합체계 확립을 통한 중장기 성장 시도

자체 기술력 기반, 다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확보



시장경쟁력

| 국내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 | 년도 | 시장규모 | 연평균 성장률 ▲ 15% |
|----------------|-------|-------------|------------------|
| | 2015년 | 2조 80억 원 | |
| | 2022년 | 5조 6,172억 원 | |

시장환경 및 전망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시스템/네트워크화되고 있으며, 해당 체계 하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등의 보안위협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보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산업 전반의 수요증대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됨.

I. 기업현황

정보보안 주력사업 내 매출다변화를 통한 사업모델 고도화 중

동사는 보안 솔루션과 신원인증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보안/인증 분야 내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요처 니즈가 중요한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체계를 꾸준히 고도화하여 업계 내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제품군 다각화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매출다변화 체제 기반 양적성장을 시도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1998년 4월 16일 설립되어 2000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사업의 확장 및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매출증대/이익실현의 가속화를 통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2012년 10월 정보보안 업체인 '루멘소프트'를 흡수합병하여, '라온시큐어'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동사는 스마트워크와 데일리 라이프에 필요한 보안 솔루션과 신원인증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보안/인증 분야 내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점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 일자 | 내용 |
|----------|---------------------------------|
| 1998.04. | 동사 설립 |
| 2000.12. | 코스닥 상장 |
| 2013.05. | 이순형 대표이사 취임 |
| 2022.02.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
| 2022.07. | 통합 디지털 인증 서비스 '옴니원 통합인증 서비스' 출시 |
| 2022.12. | 통합인증 플랫폼 '원패스(Onepass) 2.0' 출시 |
| 2023.12. | 라온화이트햇(주) 흡수합병 |
| 2024.01. | 이정아 대표이사 취임(각자대표이사 2인 체제)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및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4.07.26.)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17.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순형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인(이정아 대표이사 외 8인)은 39.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비상장 3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 주주명 | 지분율(%) |
|--------------|--------|
| 이순형 | 17.16 |
| 라온코퍼레이션(주) | 16.49 |
| 이정아 | 2.53 |
| 특별관계자 7인(임원) | 3.43 |
| 기타(소액주주 포함) | 60.39 |
| 합계 | 100.00 |

[표 2] 주요 종속회사 현황

| 회사명 | 주요사업 | 자산총액(백만 원) |
|-----------------------------|-------------|------------|
| 인비즈넷(주) | 정보통신업(대한민국) | 1,860 |
| DIGITAL TRUST NETWORKS INC. | 정보통신업(미국) | 763 |
| OMNIONE PTE. LTD. | 정보통신업(싱가포르) | 860 |

자료: 동사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2024.07.26.),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2024.06.14)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 대표이사 경력

동사는 2인의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2013년 3월부터 동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이순형 대표이사는 인증사업 및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정아 대표이사는 한국후지쯔, LG 정보통신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동사에 입사한 이후 2023년까지 라온화이트햇(주)(2023년 11월 동사에 흡수합병) 대표이사과 동사 사장을 겸직했으며, 2024년 1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동사는 IT 보안/인증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동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부문'과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DID) 플랫폼 및 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모바일보안 솔루션(모바일 백신, PKI 공동인증/전자서명 등)과 PC보안 솔루션(가상키패드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개인 이용자 대상 PC 및 모바일 보안/인증 서비스까지 B2B2C를 지향하는 원스톱 보안/인증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생체인증(FIDO, Fast Identity Online) 기반 다요소 인증 플랫폼 '원패스(OnePass)', 통합 모바일 관리 스마트워크 플랫폼 '원가드(OneGuard)', 통합계정 권한관리 플랫폼 '터치엔 와이즈엑세스(TouchEn Wiseaccess)'를 중심의 통합인증/접근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신분증 체계의 근간이 되는 구축형 블록체인 신원인증 플랫폼 '오미원 엔터프라이즈(OmniOne Enterprise)' 등 블록체인 기반 DID(Decentralized IDentity)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주요 고객사

동사는 고객 직접 영업 및 금융 및 공공 시장 내 시스템 통합업체와의 긴밀한 영업관계 형성, 주요 지방거점을 기반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국내 주요 관공서를 포함해 의료, 금융, 통신, 전자 등의 다양한 산업군에 도입되고 있으며, 각 산업군 내 주요 기업(그룹의 계열사)들에 제품을 공급되고 있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고객사 현황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 국내/외 환경 법규 준수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저감 활동 수행



◎ 체계적인 교육 제도(인재 육성 운영, 직무/직급별 교육, 역량개발 지원 등) 운영 중
 ◎ 임신, 출산, 육아 지원, 경조비 지원, 복지 플랫폼 운영 중



◎ 공정한 기업활동을 위한 윤리헌장 마련 및 감사실 운영
 ◎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관 및 이사회 등의 운영 시스템 구축

II. 시장동향

정보보안 시장 성장세 지속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시스템/네트워크화되고 있으며, 해당 체계 하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 함께,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등의 보안위협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보안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 정보보안 시장의 구조 및 특성

동사 기술제품의 목표시장은 정보보안 시장 혹은 해당 시장의 다수 세부분야(생체인증, 통합인증/계정접근관리, 개인정보보호, 모바일보안, 암호인증 등) 시장에 해당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단의 보안위협 대응과 네트워크상 엔드포인트단의 보안체계 공격 탐지/차단에 해당하는 시스템 또는 관련 솔루션,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형태로 구성되는 측면에서는 사업적 역량이나 계획, 기술/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맞춰 플레이어별 합종연횡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글로벌 장악력이 우수한 해외 선두업체의 영향력이 강한 특성이 있다. 특히, 설치방식(온프레미스 혹은 클라우드 방식)과 수요처의 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 전략에 따라 관련 시스템 외에 관리/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 방식이 다양하므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통합/융합 시스템이나 서비스별로 다수의 벤더업체들이 주도 혹은 참여하는 복잡한 시장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국내 관련 업체들은 중소 위주의 기업규모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단위의 업력축적에 의해 인지도와 신뢰성을 확보해 왔다.

[그림 2] 네트워크보안 시장의 밸류체인 예시



자료: Coherent Market Insights, 'Cyber Security Market Analysis'(2020.01.)

한편, 신규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응용/참여 측면의 성격이 매우 큰 관련 시장의 특성에 따라 기술력도 요구되지만, 시스템 통합이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경험/실적 등도 중요하여 이러한 요소도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보안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진출하기 위한 통합/응용 분야들(XDR[eXtended Detection & Response] 보안 분야 등)에서는 국내/외 보안 관련 프로토콜 등을 포함한 수요처의 요구(니즈)가 다양하므로, 이를 경험한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교육/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규모의 경제도 요구된다. 즉,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레퍼런스 등)을 요구하므로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어, 국내/외 보안 프로토콜 등에 맞춰진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행역량 확보와 더불어, 최종 수요처의 다양한

상황 및 니즈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시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On-premise) 방식의 설치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외에도 클라우드(Cloud) 기반의 소규모 프로젝트의 니즈도 증가하는 만큼 변화되는 니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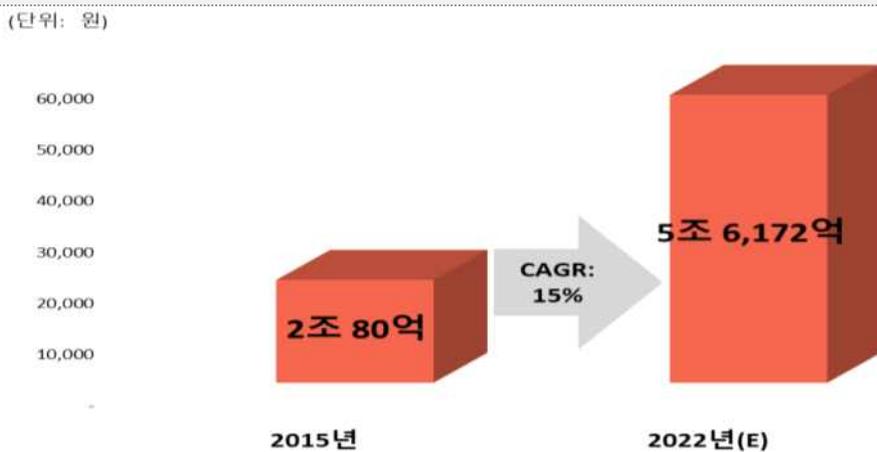
또한, 최근 정보보안 관련 시장은 네트워크의 활용범위 확대만큼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과 같은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혁신기술 외에도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기기들의 보안수준 관리 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장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수용에 따라 수요처가 매우 많은 편에 해당한다. 즉, 네트워크 사용의 급증으로 국가/기관 혹은 민간/개인 단위로 보안 관련 이슈가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에 따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 및 전망

동사는 다각화된 보안/인증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세부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으나, 동사 공급 제품군 전반을 아우르는 시장은 정보보안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사는 수출을 통한 매출(비중 약 1% 수준)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국내시장에서 시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정보보안 시장의 분석을 통해 동사의 실질적 시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의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2015년 약 2조 80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15% 성장하여 2022년 약 5조 6,172억 원 규모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산업 전반의 수요증대 하에서 실효성 입증 레퍼런스가 축적되며 순환적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어, 향후 기존 성장세와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림 3] 국내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



자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 경쟁사 분석

동사의 다각화된 제품군을 고려 시, 동사는 정보보안 시장의 다부문에서 개별 부문별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로 기존 보안/인증 분야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공급하는 다수의 국내/외 업체들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시장에 진입하여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솔루션 및 서비스 업체들도 넓은 의미에서 경쟁군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장비(하드웨어)에 납품되어 실제 최종 소비자로의 공급을 이끄는 전방업체들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서비스 업체들도 잠재적인 경쟁상황에

농일 수 있고, 향후 국외시장 사업화 확대에 따라 경쟁군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개발/공급 등을 통해 국내 정보보안 시장 내 세부시장에서 신규 아이템 발굴/육성한 동사의 사업화 레퍼런스를 고려 시, 동사와 유사 수준의 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시장에서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동사의 주요 매출원인 모바일보안 솔루션 기준, 주요 경쟁사로는 모바일단말 관리분야 '지란지교시큐리티', 모바일암호 인증 분야 '드림시큐리티', 모바일백신 분야 '안랩', 가상키패드 분야 'NSHC'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인증 서비스 분야에서 사의 주요 경쟁사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이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DID 서비스의 주요 경쟁사는 씨피랩스 등을 들 수 있다.

[표 4] 국내 모바일보안 솔루션 경쟁업체 현황

(단위: 억 원)

| 회사명 | 사업부문 | 매출액 | | | 기본정보(2023.12. 기준) |
|---------------|-----------|---------|---------|---------|-----------------------------------|
| | | 2021 | 2022 | 2023 | |
| 라온시큐어 (동사) | 모바일보안 솔루션 | 433.5 | 468.2 | 518.4 | • 중소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2000년 12월) |
| 지란지교 시큐리티 | 모바일단말 관리 | 312.9 | 322.2 | 352.8 | • 중소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2016년 9월) |
| 드림시큐리티 | 모바일암호 인증 | 1,895.1 | 2,241.9 | 2,327.4 | • 중소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2017년 1월) |
| 안랩 | 모바일백신 | 2,072.7 | 2,279.8 | 2,392.0 | • 중견기업,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2001년 9월) |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2023.12.), K-IFRS 연결 기준, NICE디앤비 재구성

한편, 상기의 주요 업체 외, 글로벌 선도 솔루션들도 국내시장을 일정 부분 선점하고 있어, 국내 정보보안 시장은 경쟁강도가 높을 수 있다. 다만, 동사는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포털, 오픈마켓, 핀테크, 게임, 통신,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1,000여 곳 이상의 기업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बैं킹 및 증권거래, 전자상거래 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탑재되는 필수 모바일보안 솔루션 4종(모바일단말 관리, 모바일백신, PKI암호 인증, 가상 키보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실제, 채택과 원격근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워크가 정착됨에 따라 모바일단말 관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산업 발전에 따라 모바일보안 솔루션 시장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사는 기존 모바일보안 솔루션 고객을 기반으로 한 통합 모바일보안 솔루션 패키지 제공으로 경쟁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증 분야에서 동사는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진입장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기회를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다수의 금융사, 공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보안/인증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전자서명 인증 중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SK텔레콤, 카카오, NHN 페이코 등 국내 인증사업자와 연계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사설 인증 시장의 확대와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로 인증 서비스와 DID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사는 견고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구축한 다양한 레퍼런스와 서비스 제공 노하우를 통해 경쟁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III. 기술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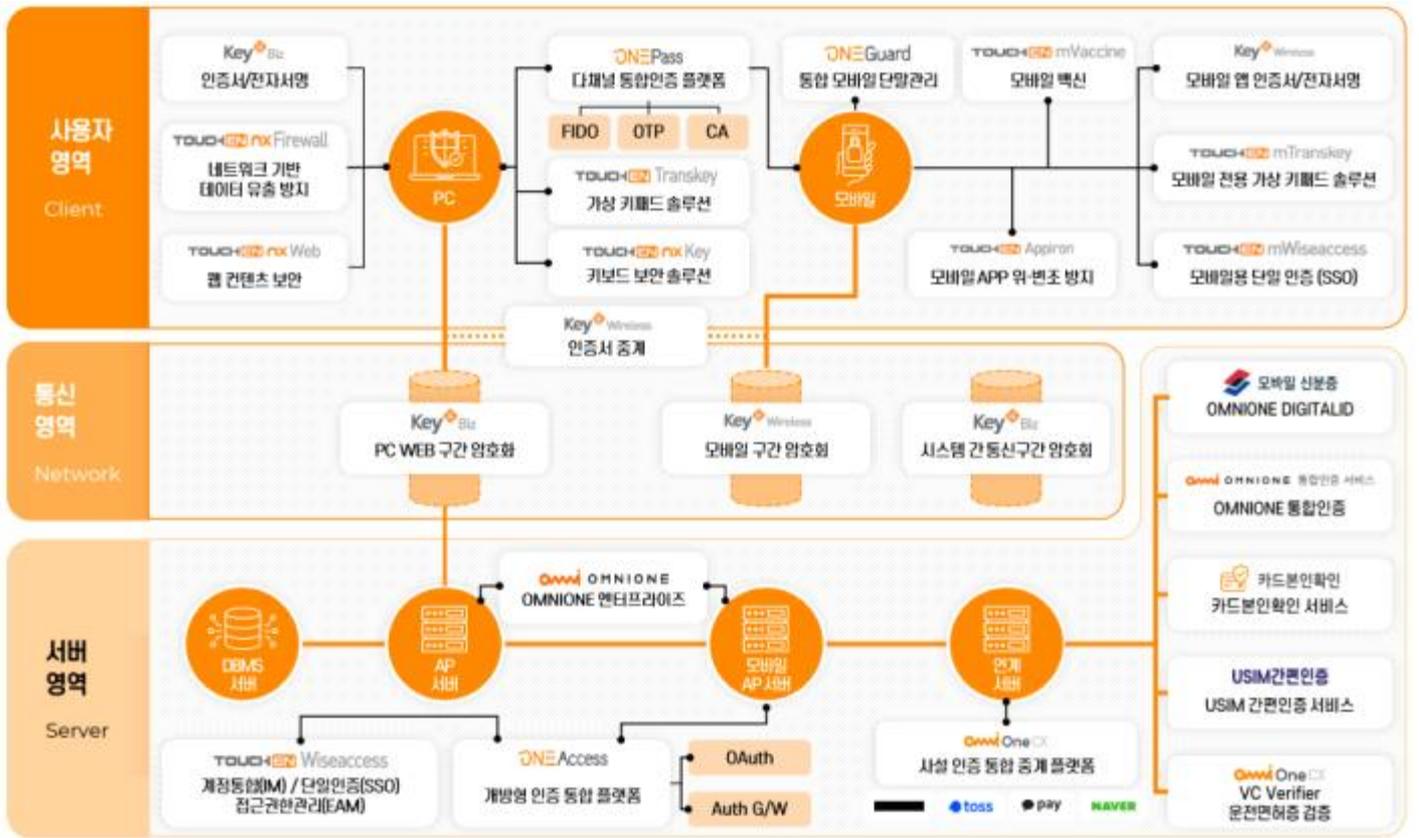
다각화된 보안/인증 제품의 개발을 위한 고유 기술체계 확립

동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고도화한 자체 정보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보안 솔루션, 인증 서비스, 화이트햇 서비스 등으로 상용화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며 꾸준히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 일상생활/금융/스마트오피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보안/인증 라인업 확보

동사는 PC, 모바일을 넘나드는 보안 솔루션과 생체인증(FIDO) 기반 솔루션들로 정보보안 강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은 제로트러스트 기반 내부통제 혁신 제품군인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지원 인증 통합 플랫폼 '원패스(OnePass)', 스마트워크 보안관리 플랫폼 '원가드(OneGuard)', 통합계정 권한관리 플랫폼 '터치엔 와이즈엑세스(TouchEn Wiseaccess)' 등이며, 이외에도 모바일 백신, 모바일 가상 키패드, 모바일 앱 위/변조 방지 솔루션 등 다양한 모바일보안 솔루션들이 있다.

[그림 4] 동사의 제품 라인업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특히, 동사의 '원패스(OnePass)' 플랫폼은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기구인 'FIDO 얼라이언스'로부터 세계 최초 FIDO Certified 인증을 받았으며, 신한은행 모바일뱅킹에 국내 최초로 FIDO 생체인증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로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민원포털 생체인증 서비스,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 등 현재까지 국내 최다 생체인증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정보보안 기업 최초로 FIDO 얼라이언스 이사회 멤버로 선임되며, 같은 이사회 멤버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인텔, 메타, 아마존 등과 함께 글로벌 인증시장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동사는 글로벌 디지털 인증 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블록체인 디지털 ID 기술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증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하였다. 또한, 동사의 대표적인 인증 서비스로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자격 인증 통합 SaaS 플랫폼 '옴니원 디지털 아이디(OmniOne Digital ID)',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수많은 민간인증서를 하나의 창으로 제공하는 SaaS형 통합인증 서비스 '옴니원 CX'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국내 인증 서비스 산업 내 최상위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사의 모바일 신분증 기술사업화 현황

국내 유일 대한민국 국가 모바일 신분증 레퍼런스 보유



블록체인 기반 국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 본격 개막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대상 다 · 발급 용이성 우수

| 구분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
| 발급대상 | 4,500만 명 | 3,200만 명 |
| 발급기관 | 행정복지센터 |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 전국 기관수 | 3,495개 | 305개 |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동사의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2009년 3월 기업부설연구소를 공인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안 솔루션, 인증 서비스 등의 개발과 관련한 고유체계의 고도화와 관련한 자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혹은 수요산업군 선도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신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더불어, 동사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지닌 화이트 해커들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모의해킹 서비스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핵심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국가 지정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화이트 해커가 수행하는 실제와 동일한 공격자 관점 모의해킹 서비스인 프리미엄 모의해킹을 비롯해 솔루션/서비스 검증 서비스, 인증지원 컨설팅, 취약점 분석/평가 등 정보보호를 위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 동사의 화이트햇 기술사업화 현황



그 외, 동사는 메타버스 기반 실습 전문 플랫폼인 '라온 메타데미'를 출시하였으며,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습교육이 필요한 대학, 의료기관, 협회, 단체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다변화된 기술사업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 간호/물리치료/보안 분야 등의 실습교육을 가상현실(VR)과 혼합현실(MR)을 이용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동사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과 함께 의료 전문 콘텐츠를 공동개발하여 출시하였으며, 메타버스 실습 콘텐츠 기업과 실습교육 기업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실습 전문 콘텐츠를 확보함과 동시에 '옴니원 배지(OmniOne Badge)'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옴니원 디지털 아이디(OmniOne Digital ID)'를 적용한 간편인증 등 블록체인 신기술을 탑재하여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동사는 별도 재무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대비 약 21%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 주요 사업이 포함되는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평균 4.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기존 확립된 보안/인증 기술의 고도화 및 차세대 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연구개발비용

(단위: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 항목 | 2021 | 2022 | 2023 |
|----------------|------|------|------|
| 연구개발비용 | 66.8 | 64.4 | 73.9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21.2 | 20.5 | 21.2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NICE디앤비 재구성

IV. 재무분석

솔루션 사업부문 실적확대로 매출증대 지속, 2023년 영업적자 전환되어 수익성은 열위한 수준
최근 3개년 주력부문인 솔루션 사업부문의 안정적인 매출확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자회사 합병 및 신규사옥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따라 영업적자로 전환되었다.

■ 최근 3개년 주력 솔루션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실적상승 및 외형성장세 유지

동사는 금융, 공공기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모바일보안 솔루션과 PC보안 솔루션 공급, 개인 이용자 대상으로 PC, 모바일보안, 인증 서비스까지 기업-소비자 중개거래(BCB2C)를 지향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2021년 433.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체계 구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한 468.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내 모바일 신분증 체계 구축으로 인한 매출확대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18.4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출성장세가 지속되었다.

한편, 2024년 1분기 IDaaS 인증 및 블록체인 서비스 매출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11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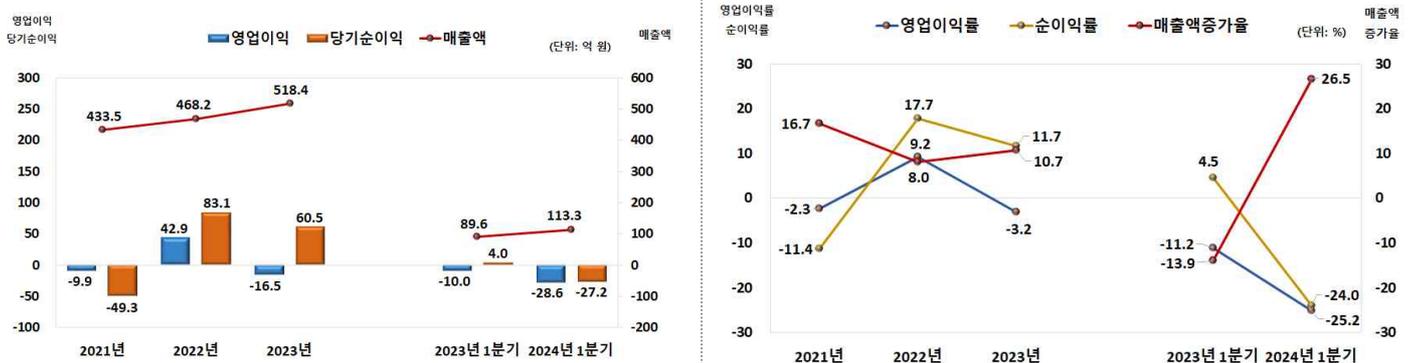
■ 2023년 합병 및 신규사옥 이전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따라 영업적자 전환

2021년 9.9억 원의 영업손실 기록 및 무형자산 손상차손, 파생상품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49.3억 원의 순손실을 나타냈으나, 2022년에는 원가부담 완화 및 대손상각비 환입,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감소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 42.9억 원(영업이익률 9.2%)을 기록하며 흑자전환 하였다. 또한, 파생상품평가이익, 이자수익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 83.1억 원(순이익률 17.7%)을 기록한 바,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2023년은 자회사 합병에 따른 비용증가, 신규사옥 이전에 따른 일회성 비용 증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영업손실 16.5억 원을 기록해 적자전환 하였다. 다만, 이자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등으로 순이익 60.5억 원(순이익률 11.7%)으로 순손익은 흑자를 지속하였으나, 전년 말 대비 다소 약화되었다. 한편, 2024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8.6억 원의 영업손실 및 27.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여 전년에 이어 수익성은 열위한 수준을 지속하였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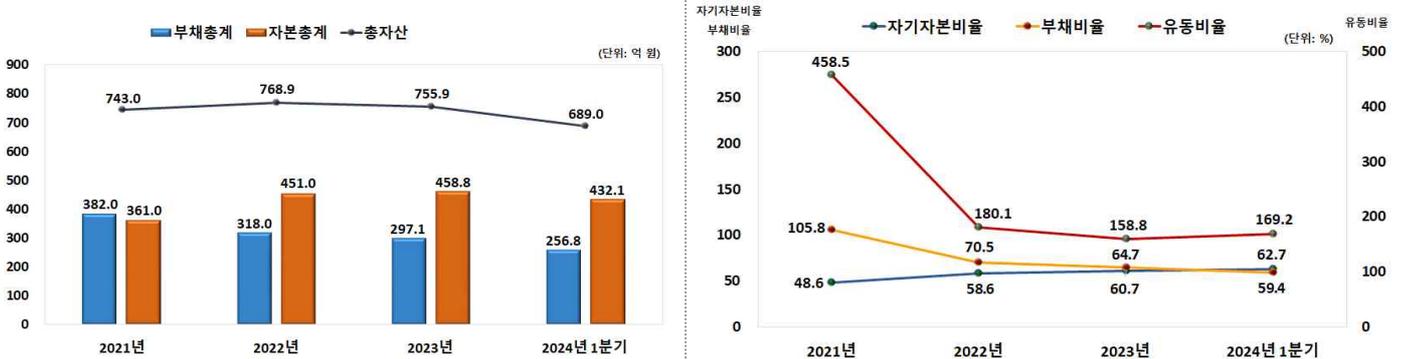
■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추세로 안정적인 수준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1년 105.8%, 2022년 70.5%, 2023년에는 64.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4년 1분기에도 매입채무, 리스부채 등의 감소로 인해 59.4%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다. 지속적인 부채규모 감소에 힘입어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매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3개년간 유동비율은 각각 458.5%, 180.1%, 158.8%를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00%를 상회하는 무난한 수준이며 2024년 1분기 유동비율은 169.2%를 기록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3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
| 매출액 | 433.5 | 468.2 | 518.4 | 89.6 | 113.3 |
| 매출액증가율(%) | 16.7 | 8.0 | 10.7 | -13.9 | 26.5 |
| 영업이익 | -9.9 | 42.9 | -16.5 | -10.0 | -28.6 |
| 영업이익률(%) | -2.3 | 9.2 | -3.2 | -11.2 | -25.2 |
| 순이익 | -49.3 | 83.1 | 60.5 | 4.0 | -27.2 |
| 순이익률(%) | -11.4 | 17.7 | 11.7 | 4.5 | -24.0 |
| 부채총계 | 382.0 | 318.0 | 297.1 | 267.1 | 256.8 |
| 자본총계 | 361.0 | 451.0 | 458.8 | 455.6 | 432.1 |
| 총자산 | 743.0 | 768.9 | 755.9 | 722.6 | 689.0 |
| 유동비율(%) | 458.5 | 180.1 | 158.8 | 183.2 | 169.2 |
| 부채비율(%) | 105.8 | 70.5 | 64.7 | 58.6 | 59.4 |
| 자기자본비율(%) | 48.6 | 58.6 | 60.7 | 63.0 | 62.7 |
| 영업현금흐름 | 38.7 | 76.7 | 80.0 | -8.2 | -25.5 |
| 투자현금흐름 | -48.3 | -233.0 | 68.6 | -60.1 | 17.7 |
| 재무현금흐름 | 197.7 | -15.7 | -273.8 | -4.8 | -2.7 |
| 기말 현금 | 368.1 | 203.3 | 78.5 | 130.8 | 68.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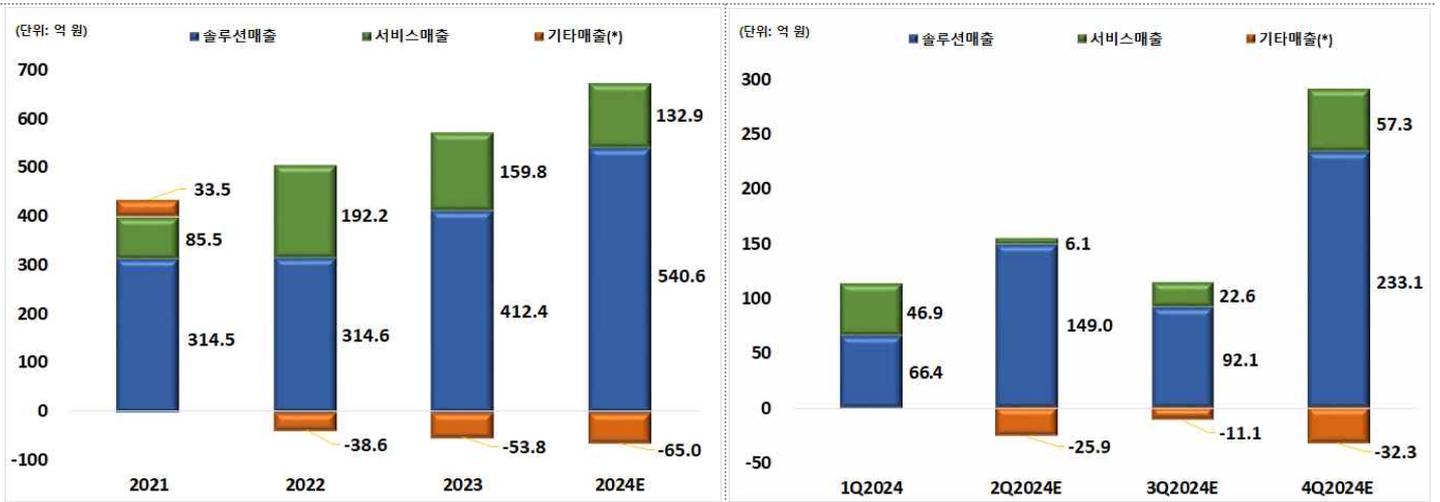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최근 3개년 간 주력 솔루션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나타낸 가운데, 2023년은 모바일 국가 보훈등록증 등 국내 모바일 신분증 체계 구축, 2024년 1분기는 IDaaS 인증 및 블록체인 서비스 매출 등 영향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하였다. 향후 동사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해외국가 대상의 디지털 신분증 플랫폼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사의 매출이 대부분 발생하는 정보보안 시장의 경우, 정보보안 인식 확대에 기반한 수요증대에 따라 시장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4년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동사의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표 7]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 항목 | 2021 | 2022 | 2023 | 2024E | 1Q2024 | 2Q2024E | 3Q2024E | 4Q2024E |
|---------|-------|-------|-------|-------|--------|---------|---------|---------|
| 매출액 | 433.5 | 468.2 | 518.4 | 608.5 | 113.3 | 129.2 | 103.6 | 258.1 |
| 솔루션매출 | 314.5 | 314.6 | 412.4 | 540.6 | 66.4 | 149.0 | 92.1 | 233.1 |
| 서비스매출 | 85.5 | 192.2 | 159.8 | 132.9 | 46.9 | 6.1 | 22.6 | 57.3 |
| 기타매출(*) | 33.5 | -38.6 | -53.8 | -65.0 | - | -25.9 | -11.1 | -32.3 |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3.12.), 분기보고서(2024.03.), NICE디앤비 재구성

(*) 기타매출은 기타부문의 매출액과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상계액을 합산한 순액임.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모바일 신분증 사업화 확대, 신규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증장기 성장 시도

동사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화 확대, 신규 아이템 발굴 등 다각화된 솔루션/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한 자체 기술체계와 더불어 수요산업 내 협력체제 등을 통해 차세대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실적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 모바일 신분증 사업화 확대를 통한 실적증대 추진

동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장에 유일하게 진입한 업체로,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공 중이며 올해 6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주민등록증(4,500만 명)은 운전면허증(3,200만 명) 대비 모수가 많으며, 민간시장까지 개방될 예정으로 민간시장은 삼성월렛 탑재 및 카카오 등록 등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그림 10] 국내 모바일 신분증 민간시장 활성화 사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활용 본격 활성화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또한, '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신분증 미보유자에게 모바일 신분증 보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서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수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 하에서, 해당기관들은 동사의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경쟁력에 주목하여 실증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신분증이 없는 인구가 11~13억 명(전체 인구 약 80억 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신분증이 없는 인구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화가 추진될 시 대규모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모바일 신분증 구축 시범사업(PoC)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사는 실제적 해외 진출 레퍼런스를 확보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화 체제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동사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해외진출 현황

국내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레퍼런스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모바일 신분증 적용 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중 → '국제 표준 리딩' 통한 큰 폭의 매출 확대 가능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신규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

동사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해독하는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내성을 갖는 안전한 암호체계인 양자내성암호 관련 제품의 개발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동사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할 수 있는 기술(동형암호화 기술)을 확보한 '크립토탭'과의 MOU를 체결하며, 관련한 개발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또한, 동사는 딥페이크 감지 안면인식 기술, 생성형 AI/동형암호 기반 안면인식 기술 등을 기존 소비자용 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고도화된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동사는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유관 기술체계 확립과 기존 기술사업화 체계와의 융합을 통해 중장기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그림 12] 동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예시

생성형 AI 보안 솔루션 개발

• 딥페이크 탐지



1,000만 원 이상이 사용하는 개인용 백신 '라온 모바일 시큐리언'에 딥페이크 탐지 기능 탑재 연구개발 진행 중 → 2024년 하반기 적용 예정

• 생성형 AI + 동형암호 기반 안면인식 기술 개발



동형암호 기반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보안 강화 모바일인식 솔루션 개발 중

양자내성암호 및 동형암호 솔루션 공동개발 TF 출범



양자내성 암호 솔루션 개발 추진

모바일 환경 암호 취약점 자동화 스키닝 솔루션



자료: 동사 IR자료(2024.07.)

증권사 투자 의견

| 작성기관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유진투자증권 | NR | - | 2024-03-11 |
| 유진투자증권 | NR | - | 2024-05-22 |

시장 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4.08.06.)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 기업명 |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
|-------|--------|--------|--------|
| 라온시큐어 | X | X | X |